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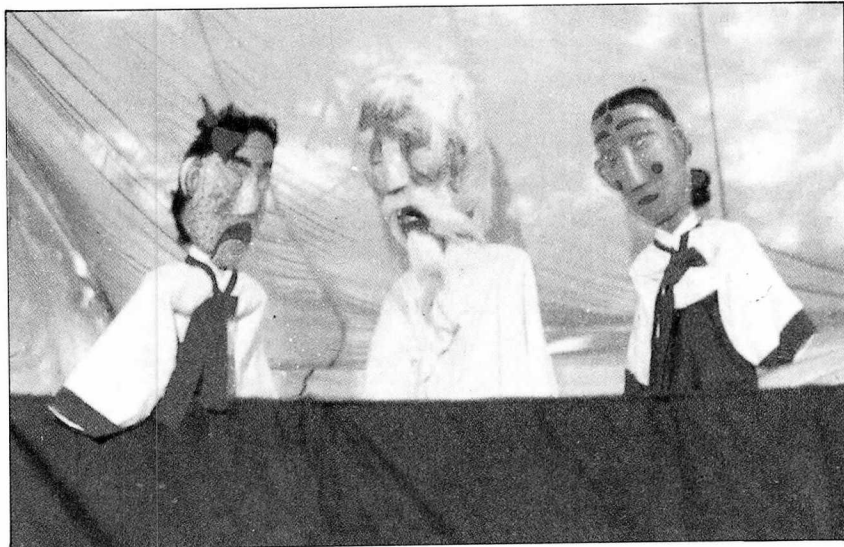
전통가면극의 연극사적 체계 정립

서연호 지음 「한국의 탈놀이」 전5권

우리의 탈문화는 기원전 4천년대의 고고학적 유물에서 벌써 확인된다. 애초에는 신의 얼굴을 상징했던 탈은 각종의 제의에서 제사가 면으로 착용되다가 후대로 내려오며 차차 연희나 오락의 가면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서민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민속 혹은 민중예술로서의 성격을 굳히게 된다.

최근 서연호(고려대 국문과·연극평론가) 교수에 의해 전5권으로 완간된 「한국의 탈놀이」(열화당)는 이같은 우리의 탈과, 그 탈을 쓰고 행해졌던 탈놀이의 예술성과 사회성, 역사성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어 흥미롭다. 우리 탈놀이에 관한 저자 자신의 현장 전승적 연구를 토대로 하면서, 거기에 문헌자료와 최근의 새로운 논문, 비교연극학적 관점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특히, 종래 국문학이나 민속학적 측면에서의 규명에 치우쳤던 탈놀이 연구를 연극학적 입장에서 고찰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탈놀이 연희현장을 담은 생생한 원색도판과 탈놀이의 시원적 모습을 알리는 회귀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점도 이 시리즈의 특징점으로 꼽힌다.

1987년에 나온 제1권 「산대탈놀이」는 경기도 일원에 전승되는 산대탈놀이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송파산대놀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산대탈놀이는 궁중의 산대놀이가 쇠퇴해 가던 조선후기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성립된 것으로서, 다른 탈놀이에 비해 춤사위가 곱고 세분화돼 있으며 놀이과정의 짜임새가 매우



꼭두각시놀이의 한 장면. 박첨지가 첩으로 맞은 덩머리집을 본처에게 소개한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내용상으로도 당대의 지배층과 신분제도 등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어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함축적으로 시사해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책은 이같은 산대탈놀이의 특징을 양주와 송파산대놀이에 대한 개별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으며, 부록으로 日人학자들의 관련자료 두편을 번역하여 실었다.

제2권 「황해도 탈놀이」(1988)는 한국의 전승탈놀이 가운데 특히 춤사위가 발달해 '탈춤'으로도 불리는 봉산, 강령, 은율 등 황해도 지역의 탈놀이를 다루고 있는데, 각각의 탈놀이의 성립과정과 환경, 놀이패와 놀이꾼, 탈과 기본춤, 놀이본의 채록 등을 신고 총론격의 논문 「황해도 탈놀이의 구성과 등장인물」을 수록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1936년에 채록된 봉산탈춤놀이대본과, 일본인학자 村山智順의 「민중

오락으로서의 봉산가면극」을 번역하여 실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 전승탈놀이의 실체를 살피고 있는 제3권 「야유·오광대 탈놀이」(1989)에는 동래 및 수영의 야유와 통영·고성·가산의 오광대놀이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자에 의하면 낙동강 동쪽 지역의 탈놀이를 '야유', 서쪽지역의 탈놀이를 '오광대'라고 불렀다는 것.

이 책에서는 특히, 종래의 통설이던 오광대의 율지리 시원설 및 야유·오광대의 산대도 감계 분과설이 비판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낙동강유역 문화의 생성·변천·발달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저자는, 야유와 오광대놀이가 낙동강유역의 전통적 가면문화의 오랜 전승물이자 현대적 잔존물이라는 점을 강

조한다. 탈놀이연구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송석하와 정인섭이 채록한 동래야유 및 진주오광대 대본을 부록으로 실었다.

제4권 「꼭두각시놀이」(1990)는 전통인형극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꼭두각시놀이를 다룬 것으로서, '박첨지놀이' '홍동지놀이' 등으로 불리는 꼭두각시극의 전승과정, 인형의 특징과 놀이방법, 놀이의 재담구성과 내용, 놀이전승집단의 연구 등이 최신자료를 토대로 깊게 논의되고 있다. 관계자료로 「남사당 꼭두각시놀이 연희본」(박용태 구술, 서연호 채록), 「서산 박첨지놀이 연희본」(주연산 구술, 김동익 채록), 「조선의 인형극」(송석하) 등을 권말에 붙였다.

「한국의 탈놀이」 시리즈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제5권 「서낭굿탈놀이」(1991)는 탈놀이 가운데서도 비교적 종교적인 흔적이 짙은 巫劇을 다루고 있는데, 하회별신굿 탈놀이가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록논문중 「하회별신굿탈놀이」가 현장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면, 「하회별신굿놀이의 연극적 구조」는 그같은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립한 이론체계를 선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며, 「서낭굿 탈놀이의 성립과 전승」의 경우는 저자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논문으로서 우리 연극사의 연구와 기술에 하나의 기본발상과 체계를 삼을 수 있는 실증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된다.

— 최태원 기자

도서출판 대림기획 TEL : 268 - 4902 FAX : 277 - 6946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의용 칼럼집

“젖어 있는 마음은 언제나 우산을 받쳐 든다.”

우산을 펴들면,
우산 살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방울에
우리의 마음도 젖어든다.
매마른 먼지로 단단히 굳어진
우리네의 삶, 생각, 마음에
이슬비라도 뿌려지고 적셔졌으면...
신국판 / 150쪽 / 값 3,300원

